

하시무레가와 유적지

하시무레가와 유적지는 언뜻 보면 평범한 공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거진 잔디와 여유로운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일본 고대인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1916년, 공원에서 놀던 한 남자 고등학생이 도자기 조각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학생은 교사에게 조각을 가져다 주었고, 그는 도자기가 일본의 선사시대인인 조몬인과 야요이인의 양식이 섞인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조몬인과 야요이인은 다른 지역에 살았던 것으로 여겨졌고, 이들의 도자기가 한 곳에서 함께 발견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교사는 교토 제국대학의 하마다 소사쿠(1881~1938) 교수에게 이 조각을 보냈고, 하마다 교수는 이를 일본 선사시대 연대표를 명확히 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하시무레가와 부지를 파기 시작했고, 더 많은 도자와 더불어 토양층의 연대를 명확히 확정한 화산 분출의 증거를 찾았습니다. 하마다 교수는 분출을 기준으로 삼아 조몬인들이 야요이인들보다 훨씬 전에 살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통해 일본 열도의 문명 발달이 명확해졌습니다. 하시무레가와는 1924년 국립사적지로 지정되었고, 오늘날 공원의 주요 볼거리는 고대 움집을 복원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폼페이처럼 과거 화산 분출로 생긴 화산재가 마을 전체를 뒤덮어 고대인들의 일상 기록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취사 도구를 통해 고대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재에 갇힌 꽃가루를 통해 역사상 다른 시점에 어떤 식물이 잘 자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은 인근의 이부스키 고고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